

Living the Lotus 11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5
VOL. 242

Overseas Members Cheerfully Participate
in the 2025 Oeshiki-Ichijo Festival in Tokyo



Living the Lotus
Vol. 242 (November 2025)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mailto: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가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편집 스태프: 국제전도부 스태프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쿄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함께 연주하는 하모니① 분단과 조화

니와노 니치코
입정교성회 회장



갈 곳 없는 우리들

이번 달에 탄생회를 맞이하는 개조님께서서는 본 회가 창립될 때부터 일관되게 인류의 조화와 세계 평화를 바라시고, 지금의 저와 같은 미수(米壽)의 나이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시가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격해져서 대립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화 따위는 전혀 문제삼지 않으며,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나라사회를 분단시키는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사람으로서 중요한 점이 잊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점의 첫번째는, 우리들은 모두 온갖 인연 속에서 서로 살리고 살려지고 있다는 이치입니다.

'우주 체험을 한 뒤에 이전과 똑같은 인간일 수는 없다'라고 말한 사람은, 저도 이전에 강연을 청강한 적이 있는 러셀 슈바이카트(Rusty Schweickart)라는 미국의 전 우주비행사(아폴로9호)인데, 일본의 우주비행사인 야마자키 나오코(山崎直子)씨는 이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우주에서 본 지구의 아름다움과, 귀환했을 때에 느낀 지구의 사랑스러움과 함께 '모든 것이 이 지구위에서 다양한 밸런스에 의해 살려지고 있다'고 깨달은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인간끼리 싸우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며, 우주에서 보면 지구도 정말로 하나의 우주선이다'(<츄가이(中外)일보>2016년1월27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터 마티 슈라(Walter Marty Schirra Jr.)라고 하는 미국의 최초 우주비행사는 '저는 세 차례나 지구를 떠났었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다. 부디 우주선 지구호를 소중히 여겨 주었으면 한다'라고, 우리들이 지금 자각해야 할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조화를 깨는 행위는 그저 질서와 지구환경의 파괴를 진행시켜 인류의 자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자등명(自灯明) · 법등명(法灯明)을 가슴 속에

세계의 모든 위정자(為政者)에게 우주에서 본 지구의 사진을 전달하고, 우리들의 생명이 어디에서 오고, 우리들이 어떠한 섭리(摂理: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혹은 신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뜻) 하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을 촉구한다면 '전쟁 따위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고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지나친 낙관일까요? 단지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우리들은 지구의 소중함은 물론, 분쟁과 분단을 멀리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을 이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事象:사실과 현상)은 변천해 간다(무상(無常)), 모든 것은 연(緣)에 의해서 일어나며 상호 의존의 관계로 성립되어 있다(무아(無我), 공(空))——이러한 진리를 알고 지금 자신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기적과 감사함에 눈을 뜨다면, 분노나 욕심의 불길이나 오르는 일은 없다(열반적정(涅槃寂靜))고 배웠습니다.

개조님께서 이 <열반적정>을 구체적인 표현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며, 또 뒤쳐지는 자에게는 손을 내밀고, 힘이 부족한 자에게는 힘을 불어 넣어 주면서 균형을 이루며 함께 걷는다——인류 전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생기발랄한 창조와 진보가 있는 생활 속에 큰 평온함까지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고 바라는 스스로의 마음을 의지처로 삼고(자등명), 이 세상의 이치를 의지처로 삼으며(법등명), 주위에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거나 기운을 북돋아주고, 특별히 인연이 없는 사람들의 어렵고 궁핍한 상황에도 마음을 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천을 한다—— 그것이 '적정'의 세계를 목표로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평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조님께서 '방 안의 어두움에 불만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나아가 창문을 열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라고도 호소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우리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창을 열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무명(無明)의 어두움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등불을 높이 치켜들시다'—— 지금처럼 이 말이 이렇게 강하게 울려 퍼질 때는 없지 않을까요?

(『교성』 2025년 11월호)



유연한 마음으로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 한국 입정교성회 임수정

입정교성회에 언제, 어떤 동기로 입회하셨습니까?

저는 2001년 4월, 입정교성회 회원이신 올케언니(오 정숙 용산지부장)의 인도로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입회 동기는 당시 유치원생이던 아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다는 바람에서 였습니다.



임수정 주임님

아이들은 항상 산만하여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편, 입회 어머니인 올케언니에게도 10살 위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매우 고분고분하고 마음이 차분하고 온화하며 총명한 성격이었습니다.

가까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입정교성회에 입회를 하면 시누이의 아들들처럼 우리 아들들도 좋은 아이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입회 후에는 가정교육 공부를 시작으로, 법좌 수행과 당번수행 참여, 추선공양, 인도 되도리 수행, 가정에서의 세 가지 실천(① 나부터 아침 인사를 건네기 ② 이름을 불리면 “네” 하고 대답하기 ③ 자리를 뜨면 의자를 제자리에 두고,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기) 등에 힘쓰며, 현재는 주임 역할을 받아 매일 수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본부에서 열린 동아시아 간부교육에는 어떤 마음으로 참가하셨으며, 가장 큰 배움은 무엇이였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남편의 도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동안 이행자 교회장님과 이경자 고문님(전 한국교회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지도 말씀을 들어도 “그건 이런 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

정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하곤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고분 고분 받아들이며 실천했다라면 오랜 세월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에서 개최하는 동아시아 간부교육에 참가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교회장님께서 권유해 주셨을 때, 이번에는 여러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고분고분한 마음으로 “네!” 하고 대답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간부교육에서는 법화경의 교의와 법좌의 의의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실습에서 두 가지 귀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실습 중 방문한 가정의 회원님께서 선조님들로부터 이어져 온 ‘생명’의 감사함과 불가사의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선조님에 대한 감사에 보은하기 위한 회향공양의 의미와 행공양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선조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우리 집안 선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 적이 있었는가?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써 표현한 적이 있었는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신기한 인연으로 그 회원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90세가 넘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평소 저는 시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병을 합니다만, 때로는 시어머니의 말씀이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열심히 보살피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 솔직히 속마음을 털어놓자, 그 회원님께서 “그런 마음이 생겨도 괜찮아요.



2024년 10월4일, 한국교성회 「입적회 단참」 저녁 독경공양 협도사 역을 한 후, 회원 앞에서 감상발표를 하고 있는 임수정 주임님

결코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헌신적으로 계속해서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라며 따뜻하게 제 마음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 귀하고도 신비한 인연을 통해, 저도 앞으로 주변에서 간병으로 지치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라고 상대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아시아 간부교육에서 받은 법좌나 실습 가운데 특히 인상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성회의 당번수행을 할 때 당번장으로서 법좌주 역할을 맡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큰 압박감을 느껴왔습니다. 아마도 ‘도량에 온 이상 신자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드려야 하는데...’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 드려야 하는데...’ 는 생각에 사

로 잡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에서 법좌주를 해 주신 일본 간부님께서는, 제 이야기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고 제 말 속에 담긴 진정한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법좌의 경험을 통해 저는, 고민과 괴로움을 안고 있는 상대방에게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철저하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좌주를 역할을 맡더라도 예전처럼 불안이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좌는 입정교성회의 생명”이라는 말씀처럼, 법좌 수행을 통해 승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배우고 서로가 함께 연마하며, 또한 법좌주로서 조금이라도 신자분들의 마음에 평온과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늘 “모든 배움은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받아들이며, 매일 매일 이루어지는 만남과 매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만남 하나하나를 삶의 배움으로 살림으로써 내가 성장하고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입정교성회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입정교성회의 가장 큰 매력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모든 사람이 구제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뀐다”는 가르침과 같이,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하여 내가 바뀔으로써 저절로 ‘상대방이 바뀌고, 주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입회 동기는 두 아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후,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정에서 실천을 해서 덕분에 두 아들이 모두 고분고분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사이의 불화로 인해 남편과 이혼을 생각했었던 정도였습



2025년 8월, 동아시아 간부 교육 후, 수료증을 받고 함께 교육에 참가한 동기들과 함께(왼쪽에서 두번째)

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르침 덕분에 남편은 교성회의 장년부장 역할을 받아, 부부가 함께 수행할 수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바람과 앞으로의 수행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 이경자 고문님께서 “이 가르침을 버팀목으로 삼아 열심히 수행해 나가면 인생의 아름다운 황혼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제 마음에 그 말씀이 크게 울려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인생의 황혼기”란 결코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훌륭한 기간”입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묵묵히 수행을 이어오신 교성회의 선배 간부님들의 모습을 보면, 내면에서 빛이 나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변화도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으로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 그런 매력적인 인생의 선배님들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 이 귀하고 감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

행을 거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구제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제 인연에 닿는 많은 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고 싶다 — 이것이 저의 지금의 바람이며 앞으로의 수행 목표입니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최상의 길

입정교성회 니와노닛쿄(庭野日敬)





그렇다면 석가모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실은 ‘보시’인 것입니다. ‘보시’ 중에서도 최고인 ‘법시(法施)’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가르침을 확실히 익히도록 불도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무량의경’의 말을 빌리자면 ‘아직 발심하지 못한 보살이 능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며’입니다. ‘보리심’이란, 스스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면서, 사람들을 교화하려고 하는 바람을 가리키며, 즉 ‘보살’로서의 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팔만사천의 법문’이라 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만, 법화경은 그중 최상 최고의 가르침이며, 석가모니께서 진심으로 바라는 바가 설해진 경전입니다. ‘방편품’에 ‘만약 법을 듣는 자가 있다면 한 사람도 성불 못하는 이가 없느니라’고 설해져 있듯이, 모든 사람을 알아차리게 해주며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해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법화경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석가모니의 대은(大恩)에 보답하는 대도(大道)라고 단언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인류 최대의 문제는 지구환경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지구도 인류도 파멸할 거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특히 여러 선진국가 사람들의 ‘탐욕’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더욱더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고 싶다’ ‘더 안락하고 더 편리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탐욕’이, 현재와 같은 환경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법화경에 명확히 설해져 있습니다. ‘비유품’에 ‘모든 고의 인은 탐욕이 근본이 되나니 탐욕을 떨하면 의지할 바가 없느니라’고 있습니다.
 또한 ‘보현보살권발품’에는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욕심이 적고 죽함을 알아서 능히 보현의 행을 닦으리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탐욕을 떨하는 것’ 과 ‘소욕지족을 실행하는 것’이, 지구와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하는 일대사(一大事)인 것입니다.

니와노닛쿄헤와법화집1 『보리의 싹을 틔움이니라』 중





Donate-a-Meal Movement

한끼 바치기 운동

마음이 기뻐한다

「한끼 바치기 운동」이란

‘한끼 바치기 운동’이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재해, 빈곤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돈, 예를 들면 식사와 취미 생활에 사용하는 돈을 현금해서 지원활동에 도움을 주는, 즉 아픔과 고통, 마음을 서로 함께 나누는 운동입니다.

「한끼 바치기 운동」 50주년을 맞이하며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庭野日鑛)

‘한끼 바치기 운동’이 올해, 50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했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이 운동을 지탱시켜주고 계시는 전국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모인 정재(淨財)는 160억엔이 넘으며, 빈곤소멸, 난민지원, 환경보전 등 국내외 폭넓은 분야에서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근래에는 코로나 감염 사태에 ‘한끼 지역 공헌 긴급지원 프로젝트’로 인해 대안학교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학원, 아이들 식당 등에 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가장 필요로 한 곳에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져 왔던 것에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실천의 결실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에게 ‘동비(同悲)’의 마음을 담아 현금하며, 현실과 과제를 배우며,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배워왔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자비심, 배려심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리아타원만’인 것입니다.

‘자리(自利)란, 자신의 이익과 구제이며 ‘이타(利他)’란 타인의 이익과 구제를 말합니다. ‘자리아타원만(自利利他圓滿)’은, 자리와 이타 양쪽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자비심에 의해 사람들을 구제로 이끌어, 그것이 동시에 스스로의 기쁨과 구제로 이어진다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이 ‘자리아타원만’은, 대승보살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도 처음에는 자신의 고뇌를 해결하려고 수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열자, 자신만의 깨달음만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으며, 만인이 구제되지 않는 한, 개인의 진정한 구제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 동화작가이며 법화경 신앙에 두터운 미야자와 켄지(宮沢賢治 1896~1933)의 ‘세계 전체가 행복해지지 않는 한 개인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 나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도겐선사(道元禪師1200~1253)는 ‘자기(自己)’와 ‘타기(他己)’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자(自)’ ‘타(他)’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自)’의 ‘기(己(자기))’,



‘타(他)’의 ‘기(己)’를 보고, 근본에서는 하나의 ‘기(己)로 이어져 있다. 자기 타기는 모두 다 합쳐서 ‘대기(大己)’이며, 우주 그 자체가 기(己)라는 것입니다. 대우주에 무엇이 있든 그 하나하나가 내자신의 문제이며, 사람들의 슬픔도 기쁨도 모두 내 것처럼 느낀다, 그것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근본에 흐르고 있는 깊은 정신을 다시한번 음미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미소를 지어주었을 때, 즉 우리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실감해온 그 기쁨 하나하나를 소중한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 이 5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을 실천하는데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무국장의 메시지

‘한끼 바치기 운동’이 시작되고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념하며, 1월부터 8월에 걸쳐서 한끼 운동에 대한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받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 한끼 운동에 대해 배우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끼 운동에 대한 탐구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깊이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아 주신 헌금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재해·빈곤·기후변동 등의 영향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지원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담긴 헌금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시키며, 살아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분단과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더 이 운동의 근본에 있는 ‘일승(一乘)’정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으로 한끼운동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한끼 바치기 운동’ 실천을 계속하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시키는 일조가 될 것을 굳게 바라고 있습니다.

입정교성회 한끼 평화 기금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히데시마 쿠미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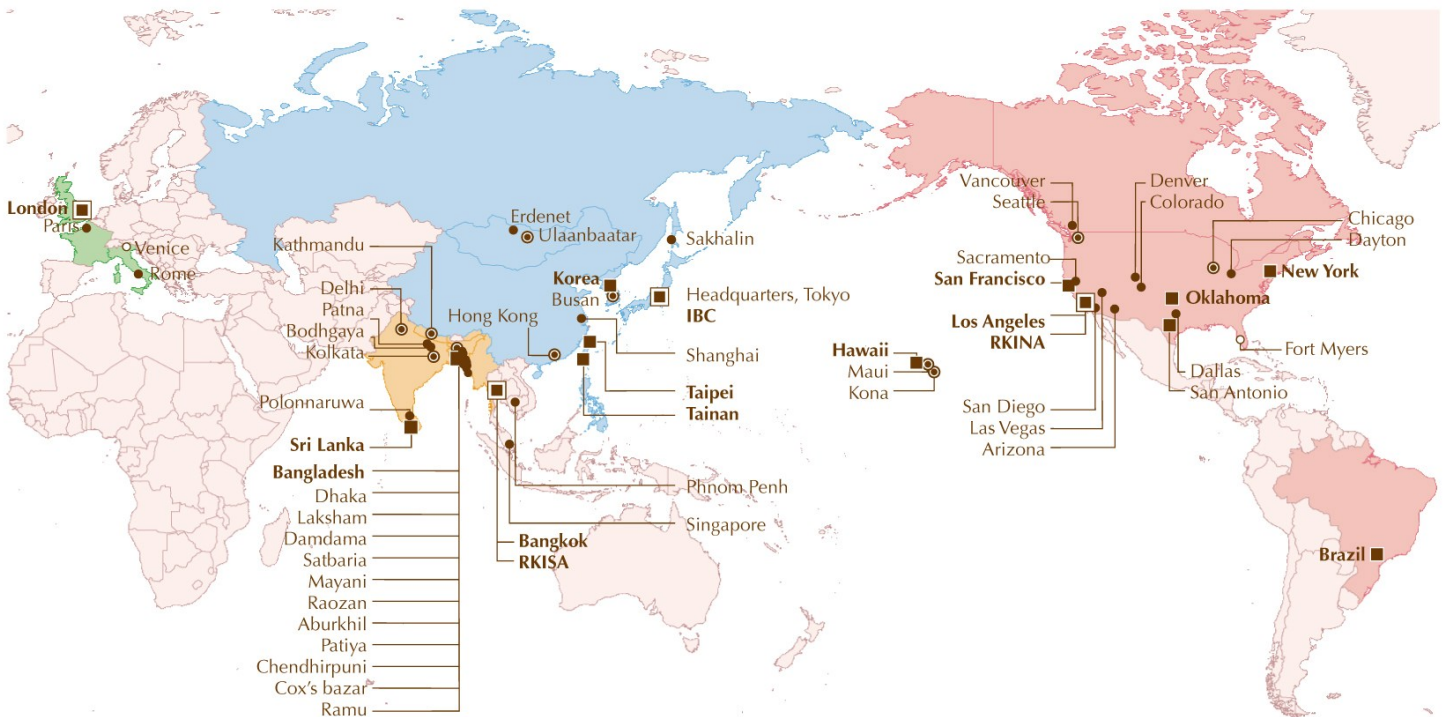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